

이홍재의 세상만사

백락(伯樂)의 눈으로 천리마를



논설고문

엇그제 설을 친 데다 입춘도 지났으니 이제 비로소 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하겠다. 세월이 오고 감이 어디 있고 시작과 끝이 어디 있으랴. 다만 분별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은 해마다 목은 해니 새해니 하며 복석을 편다. 그래서 이 지역 영광 출신인 학명(鶴鳴) 선사(1867~1929)는 일찍이 이렇게 노래했다.

“목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뀔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불가(佛家)에서는 그렇게 분별심을 없애라 하지만 중생들로서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적당히 구분을 해야만 사물의 이치가 명쾌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매년 해가 바뀌면 그 해를 상징하는 열두 동물을 갖다 붙인 것도 인간의 쓸 데 없는 분별심 때문이었을까.

어찌 됐든 올해는 말의 해다. 그런 만큼 말(馬)로써 말(言) 많은 말(馬)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입춘이었던 그즈저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얼마 안 있으면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생각나는 말은 출마(出馬)와 낙마(落馬)다.

출마는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살아 돌아올 보장이 없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심정과 비슷하겠기에 나온 말일 것이다. 오늘날의 선거판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말의 해’ 넘쳐나는 말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비장한 각오로 출사표(出師表)를 던지고 선거라는 전쟁터로 뛰어든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勝者)는 늘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당연히 낙마하는 이도 생겨나게 된다.

선거에서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우

선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상대를 비방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세상에 말뚝 해를 맞아 올레는 더욱 많은 말들이 넘쳐날 것이다.

우리는 그 넘쳐나는 말(言)과 말(馬) 속에서 ‘녹이상제’나 ‘천리마’ 같은 좋은 말을 골라야만 한다. ‘녹이’와 ‘상제’는 모두 중국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탄던 준마(駿馬)다. ‘녹이상제’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장부(丈夫)의 위국충절을 세워보겠다는 최영(1316~1388) 장군의 시조에 나오는 바로 그 천리마다.

하루에 천 리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천리마를 말하면서 백락(伯樂)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백락’은 중국 주(周)나라 때 말을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사람이다. ‘세상엔 백락이 있거 된 연후라야 천리마가 있다’고 했다.(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천리마는 언제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천리마를 알아 볼 수 있는 백락

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千里馬常有而伯樂不常有) 중국 당나라의 문인이자 사상가인 한유(韓愈)의 ‘마설(馬說)’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속의 신세 면하려면

그건 그렇고 이제 말에 관한 유머 하나를 보자. 말(馬)이 제일 싫어하는 눈이 있다는데 ‘말 꼬리 잡는 눈’ ‘말 허리 자르는 눈’ ‘말 뒤집는 눈’ 등이 라고 한다. 한데 이 나라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고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진다.

그런 사람 가려내는 것이 선거 아니겠는가. 다가오는 선거에는 기존 정당의 현 말(舊馬)도 나오오고 안철수 신당의 새 말(新馬)도 나올 것이다. 선거판이 아주 재미있게 됐다. 과연 안풍(安風)

은 어디까지 불어 닦칠까. 그리고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요즘 최대의 관심사다.

문제는 백락의 예리한 눈(目)이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백락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각 정당이기도 하고 표로 심판하는 유권자이기도 하다. 어떤 후보자를 내느냐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아직까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천리마를 잘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특히 민주당으로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흘러간 옛 노래만 읊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이번에는말로 ‘읍참마속’(泣斬馬謖: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베는 뜻)을 단단히 버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속(馬謖)의 신세를 면하려면 기득권을 버리라는 주변의 충고를 결코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흘러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두웠던 80년대 통해 청년들에 희망 주고 싶었다”

광주 온 1100만 관객 '변호인' 양우석 감독 인터뷰

“지금 우리 사회는 오해와 망각이 지배하고 있다.”

단숨에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변호인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변호인의 양우석(45) 감독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다. 전남대에서 신인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양 감독은 6일 전남대 역사관에서 만났다.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업을 토한 '초짜' 감독은 의외로 무덤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서운 속도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음부터 숫자에 의미를 두고 만든 영화는 아니다. 부담은 컸다. 다른 영화는 실패하면 돈만 날리는 것에서 끝이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 잘못될 경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 사회는 오해와 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오해와 망각을 뚫고 나와야만 했다. 특히 운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 작금의 답답한 정치·사회적 현실을 영화로나마 해소해주었기에 천만 관객이 가능했던 것 같다.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배울 것이 많다.

-학원 강사와 웹툰 작가로도 활동했는데 미혼 중반에 또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학원강사를 4년간 했는데, 그때가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인 것 같다.(웃음) 13살 때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됐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대학에서 문·사·철을 공부했

답답한 사회현실 영화로 해소

80년대 시작 5·18 잊어선 안돼

정치발전 위해 청년들 나서야

다. 변호인은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영화다. 웹툰으로 기획했는데, 최재원 대표가 영화를 만들자고 했다. 중압감 있는 감독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몇몇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고,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 내용 때문인 것 같다. 결국 내가 감독을 맡았다.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됐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없었다면 독립영화에 그쳤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하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었나.

▲이 시나리오는 92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5공 청문회 때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영화로 못 만들 줄 알았다. 그런데 3주기 때 ‘벌써 노무현 대통령이 잊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웹툰으로 만들려고 했다. 한국에서 각 세대는 7~10년 주기로 나뉜다. 각 세대는 항상 무엇인가를 남겼다. 지금의 청년들을 보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80년대는 어두웠어



도 항상 싸우려고 했다. “연애가 안 되는 것도 전두환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 청년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우리의 어두웠던 80년대를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 싶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라 평가하나.

▲신념과 성찰이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항상 본인의 생각을 회의하고 의심한 분

이다. 성찰을 통해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영화에서도 공안 경찰 차동영은 6·25로 가족을 잃은 비극을 안고 있다. 그는 성찰이 없었다. 하지만 송우석은 성찰을 통해 길을 찾았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우리의 역사를 성찰하고,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성찰이 없으면 사회가 마비된다. 지금의 사회가 그렇다. 썩비가 되고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역지사지’가 상상력의 기본이자, 가장 큰 상상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를 강조하고 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5·18은 80년대의 시작이다. 지난해 종편과 일베의 5·18 역사왜곡은 웃지 못할 일이다. 그게 마비다. 가해자들도 5·18을 못 잊고 있다고 생각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발전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는데 한계에 와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다투고만 있다. 정치는 발전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공화만 발전하고 있다. 80년대처럼 청년들이 나왔으면 한다.

-돈을 많이 번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 계획인가.

▲처음 데뷔작을 찍은 ‘입봉’ 감독은 돈을 많이 못 번다.(웃음) IMF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IMF라는 비극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이걸 제대로 다룬 것도 없다. IMF는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일 여수 기름유출사고 첫 수습대책회의가 열린 여수해양환경청 앞에서 피해주민들이 방제복을 입은 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

GS칼텍스 어민피해 선보상키로

어민 대표들과 합의... 방제 비용은 조기 지급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소유주인 GS칼텍스가 유조선 충돌 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어민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오윤열 해양수산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은 6일 오후 여수지방해양환경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GS칼텍스와 어민대표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GS칼텍스는 방제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을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대포 보상 금액을 선지급한다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법률적 표현인 ‘보상 주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민 대표 등은 앞으로 이르면 시일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오 단장은 “이번 첫 회의에서 업체와 피해 어민 사이에 중요한 2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의체 구성 이후 보상 주체, 보상 범위, 보상액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열기자 halo@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226)-호-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뢰내용 노안리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기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트렌즈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압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간학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